

‘어급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

재판부 “사회 복귀 경우 더욱 잔혹·변태적 범행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불안 감출 수 없을 것”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급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

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 및 치료비 후원금으로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찰에 계부가 부인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부인 최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낳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자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을 현혹해서 집으로 유인하고 이양과 사전 공모해서 유인한

후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게 했다. 잠들지 않으면 다른 수면제까지 감기약처럼 먹이도록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자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실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 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인간됨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영기적인 범행을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취할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민 기자

조민기 성추행 파문... 청주대 사직

배우 조민기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주대는 지난 20일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조민기 씨를 면직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씨의 소속사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학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성추행 관련 투서가 제출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 조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사결과 조씨가 수업과정에서 여학생 2명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는 조씨를 정직 3개월에 중징계 처분했다.

성추행 연루 의혹이 확산되자 ‘조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졸업생의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 지난

해 연극학과를 졸업한 송하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에게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송씨는 오피스텔과 회식자리서 조씨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이 대학 연극연학과 졸업생이라고 밝힌 김유리씨는 청주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민기 교수 성추행에 대한 피해사실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도 올렸다.

김씨는 조씨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당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하루 만에 조회수가 2만 4700여건을 넘어섰다.

충북경찰청은 피해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조씨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 덕진구, 의료급여 사례관리 적극 추진

전주시 덕진구는 올해에도 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도와주는 등 의료 급여 사례 관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요양병원의 난립과 함께 손쉽게 숙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부 수급자의 잘못된 인식이 결합돼 해마다 장기 입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장기 입원자 중 일부는 경미한 통증이나 천식, 일시적인 신체기능 저하 등의 환자로서 돌봐줄 사람만 있으면 퇴원이 가능한 사회적 입원자(병원을 치료의 공간이 아닌 생활의 장소로 삼는 자)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사업 추진 위해

전주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 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를 21일 구성했다. 사진은 21일 열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회의. /채규남 기자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중 4명의 의료 급여 관리사가 의료 급여 수급자(5,807세대 10,026명) 중 의료 급여일수 과다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를 중점적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장기 입원 사례 관리를 통해 사회적 입원자 49명을 퇴원 조치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및 요양원이나 노인 시설로 입소 연계하여 약 2억 9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입원 심사를 강화하고 퇴원 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간 자원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덕진구 생활복지과 최성식 과장은 “개인생활이나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진료를 약용하는 수급권자와 부적절한 의료 이용 행태를 묵인하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의료 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박근혜 1심 결심 27일 확정... 오후 검찰 구형

오후 검찰 구형... 이르면 내달 안에 1심 선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로 확정돼 당일 오후 검찰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15차 공판에서 27일에 최종 변론 절차를 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7일과 28일로 예정됐다가 2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공판준비기일로 예정돼 있어 하루씩 앞당겨진 26일과 27일로 결정됐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27일 예정된 재판시간은 6시간으로 검찰이 요구한 남은 서증조사 소요시간은 3시간이다. 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최종 변론이 2시간, 검찰은 30분 결정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재판부는 26일 재판을 하지 않

고 27일에 검찰의 남은 서증조사를 끝낸 후 오후에 최종변론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검찰 구형을 마치면 이르면 내달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을 하고 나서 1개월 전후로 열리지만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더 소요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협력

CYS-Net 실행위원회 개최... 긴급대응체계 시스템 구축 등 논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1일 전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소속 1차 실행위원회(솔루션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YS-Net 실행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주시 긴급대응체계 시스템 구축의 건 △2018년 공동사업 추진의 건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 자원의 유·무상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논의 △2018년 회의장소 관련의 건에 대한 안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여 기관들은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 자원

의 유·무상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이 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전주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완주 송유관 절도범 44일만에 검거

완주의 한 야산에서 송유관 기름을 빼내 훔치려다 불을 내고 도주한 50대가 4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21일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57분께 공병 3명과 병동들의 한 야산에 묻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화재가 발생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송유관을 드릴로 뚫던 중 발생한 화재로 공병 A(63)씨와 B(61)씨가 큰 화상을 입자 이들을 대구시 한 병원에 옮긴 뒤 도주했다.

이후 A씨는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같이 치료를 받은 B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달이안 공병 1명을 추적 중이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